

# 소셜 분석을 통한 사전제작 드라마의 가능성과 한계에 관한 연구 -jtbc <맨투맨>을 중심으로-

김경애<sup>1</sup>, 구진희<sup>2\*</sup>

<sup>1</sup>목원대학교 국어교육과, <sup>2</sup>목원대학교 정보통신융합공학부

## A Study on the Potential and Limitation of Pre-producing Dramas through Social Analysis -focusing on a jtbc drama <Man x Man>-

Kyung-Ae Kim<sup>1</sup>, Jin-Hee Ku<sup>2\*</sup>

<sup>1</sup>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Mokwon University

<sup>2</sup>Division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Convergence Engineering, Mokwon University

**요약** 본 논문은 드라마 사전제작과 스토리텔링의 관련성을 소셜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드라마의 스토리텔링이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구조화되어야 할지를 jtbc의 <맨투맨>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사전제작 드라마에 대한 시청자들의 생각을 읽어내  
기 위해 뉴스를 배제하고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하여 글을 올리는 블로그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사전제작과 드라마라는 단어를  
포함한 2016. 12. 15~2017. 12. 15 사이의 블로그 67개를 선정하여 텍스트 마이닝을 수행하였다. 또한 사전제작 드라마이던  
서 작품의 스토리텔링에 문제를 지닌 것으로 판단되는 드라마 <맨투맨>에 대한 감성분석을 수행하였다. 블로그 텍스트 추출  
과 텍스트 마이닝은 OutWit Hub와 R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좀 더 방대한 데이터를 대상으로 감성 분석을 하기 위해 소셜  
메트릭스에서 제공하는 도구를 활용하였다. 감성분석 결과, <맨투맨>에서 시청자들은 김설우와 차도하의 로맨스에 공감하지  
못했고 그것이 여성인물의 개연성 부족에서 비롯되었다는 해석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드라마의 성패는 사전제작 여부에 달  
려있는 것이라기보다 기획부터 제작에 이르는 스토리텔링의 과정이 얼마나 치밀하고 시청자의 공감을 얻도록 구조화되어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러한 연구는 디지털 중심 스토리텔링 연구의 기반을 조성하고 문화 콘텐츠 산업의  
전망과 이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relevance of pre-production and storytelling in big data analysis and, focusing on  
JTBC's Man to Man series, looks at how the drama's storytelling should be structured. In this study, we conducted  
text mining on blogs focused on a particular topic to read the viewer's thoughts on pre-produced dramas and on 67  
blogs written about Pre-Production Dramas from 2016.12.15 to 2017.12.15. Also, we conducted sentiment analysis  
about the Man to Man series, which is not only a pre-production drama, but also has storytelling issues. The blog  
text extraction and text mining were analyzed using the OutWit Hub and the R, and the tools provided by social  
metrics were used to make sentiment analyses of the larger data. Sentiment analysis revealed that the viewers of the  
Man to Man series did not agree with the romance between Kim Sul-woo and Cha Do-ha, due to the lack of reality  
in the female characters. Therefore, it was concluded that it is crucial to increase the reality of the characters in order  
to increase the audience's empathy. These studies will continue to be necessary, because they will form the basis for  
digitally driven storytelling studies and will provide valuable materials for conducting predictions and instructions in  
the cultural content industry.

**Keywords** : sentiment analysis, social analysis, storytelling, text mining, viewers empathy

\*Corresponding Author : Jin-Hee Ku(Mokwon Univ.)

Tel: +82-42-829-7647 email: jhku@mokwon.ac.kr

Received January 30, 2018

Revised February 1, 2018

Accepted February 2, 2018

Published February 28, 2018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드라마 제작 환경이 변화하면서 드라마 사전제작 및 사전제작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6년 한해만 해도 KBS의 <태양의 후예>, <화랑>, <함부로 애틀하게>, SBS의 <달의 연인-보보경심 러>, tvN의 <내일 그대와>, <안투라지>, <신데렐라와 네 명의 기사> 등이 제작되었고, 2017년에는 SBS의 <사임당-빛의 일기>, <엽기적인 그녀>, MBC의 <군주-가면의 주인>, jtbc의 <맨투맨>, tvN의 <하백의 신부> 등이 사전제작 드라마로 관심을 모았다.

사전제작 드라마란 작품을 미리 제작한 뒤 판권을 방송사에 판매하는 ‘선 제작, 후 판매’ 개념의 드라마를 말한다. “판권 등 작품에 대한 모든 권한을 외주제작사가 갖고 방송사는 방영권만 갖는”[1] 드라마를 말하는데, 개념 자체는 그러하지만 이러한 존재 양태가 국내 방송 환경에서는 실제로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수익의 핵심인 판권에 대한 방송사와 외주제작사의 역학 관계 때문인데, “방송사는 편성을 주면서 해외 판권의 60% 이상을 요구하고, 방송이 시급한 외주제작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1] 현실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사전제작은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2004년 제작되었던 사전제작 드라마인 <비천무>가 2008년에야 겨우 방영된 사례가 있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는 방송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특히 중국 시장의 영향으로 드라마 사전제작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보다 까다로운 기준을 가진 중국에서 사전 심사를 해야 하는 일이 늘어나게 되자 미리 제작한 콘텐츠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늘어난 것”[2]인데, 인터넷을 통해 방영되는 즉시 해외에서도 오픈 액세스되는 현재의 방송 환경 역시 드라마 사전제작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킨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의 경우에도 이미 드라마 사전제작 시스템이 정착된 바 있다.

한국에서 사전제작이 정착되지 못한 데에는 방송사의 횡포 외에 또 다른 맥락이 존재한다. 사전제작의 경우 대중의 흥미나 관심을 즉각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른 바 ‘쪽 대본’으로 제작되는 드라마가 대중의 흥미나 관심을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사전제작 드라마는 방영 이전에 촬영과

제작을 끝내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관심이나 흥미를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못하여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이용석 SBS드라마본부 EP는 “100% 사전제작 드라마의 문제는 한국 드라마의 장점인 시청자의 실시간 반응과 트렌드를 반영하는 순발력을 차단한다는 데 있다.”고 말한다[3]. 실제로 사전제작된 드라마들이 줄줄이 흥행에 참패하여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2016, 2017년 방영된 사전제작 드라마들의 경우 <태양의 후예>를 제외하면 대부분 시청률 면에서 고전을 면치 못한 바 있다.

그러나 드라마의 흥행 저조가 꼭 사전제작이어서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 사전제작을 했음에도 성공한 드라마가 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가장 가까운 예로 <태양의 후예>는 평균 38.8%(닐슨코리아 제공)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2016년 백상예술대상에서 TV부문 대상에 선정되기도 하였다[4].

한국에서 문화산업은 이미 한국 경제를 좌우할 수도 있는 차세대 산업으로 떠올랐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17년 1월 개최한 ‘2017 제1차 콘텐츠 정책포럼’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2016년 국내 콘텐츠 산업 매출액은 삼성전자 매출액의 약 53.4%에 해당하는 105조3000억원을 기록했다[5]. 드라마 산업은 관광산업이나 제조업, 각종 프랜차이즈 산업과 결부되어 엄청난 부가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된다. <가을 동화>와 <겨울 연가>가 일으킨 촬영지 방문 열풍이나 <별에서 온 그대>가 일으킨 소위 ‘치맥 열풍’, 여주인공이 모델로 등장하는 화장품 구매 열풍을 생각하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산업과 관련 산업을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심도 있는 고려가 필요한데, 해외시장을 고려하여 작품성 향상 및 다양한 요소들을 아우르는 산업 전략을 세우기 위해 사전제작 시스템 정착에 대해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1.2 연구의 목표

드라마의 흥행 저조는 사전제작이기 때문이라기보다 오히려 스토리텔링의 문제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은 신문기사나 방송평 등에서 부분적으로 제기되기도 했다[6]. 그러나 대체로는 사전제작 때문인 것으로 논급되었고, 스토리의 문제라고 지적하였어도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이고 어떤 관점에서 접근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궁구되지 못하였다. 명확히 말

해서 이 문제는 스토리가 아니라 스토리텔링, 곧 스토리와 담론 두 층위 모두에 걸친 문제이며, 이야기의 구조화 과정 중 발생한 것이므로 보다 정확히 말한다면 담론 층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사전제작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많지 않는데, TV드라마의 외주제작 정책현황과 대응방안을 밝힌 연구[1]와 중국 영상산업의 외국인투자 규제에 대한 법적 연구[7], 드라마 제작에 관련한 이해관계자간 파워 인식이 제작시스템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8], 한국영상 콘텐츠 시장의 중국투자 양상에 대한 연구[9] 등이 있다. 기존연구에서도 사전제작 시스템의 필요성과 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드라마 흥행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시청자의 인식과 결부지어 논의한 연구는 없었다. 본고에서는 드라마 사전제작과 스토리텔링과의 상관관계를 소셜 분석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드라마 흥행의 또다른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대중의 인식을 통해 그 관련성을 증명하려는 시도이다. 소셜 분석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다양한 소셜 미디어를 통해 생성되는 텍스트를 수집하여 트랜드를 분석하고 사회 현상에 대한 인과성을 발견하고자 하는 기술이다[10,11,23]. 문화연구가 다양한 문화현상을 통해 집단의식을 추상화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면, 변화하는 집단의식의 실체를 밝히는 데 있어 소셜 분석은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드라마의 스토리텔링이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구조화되어야 할지를 jibc의 <맨투맨>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맨투맨>은 사전제작 드라마일 뿐 아니라, 종편임에도 불구하고 평균시청률 4.1%(닐슨코리아 제공)를 기록했던 작품이다. 이 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이 드라마가 초반에는 성공을 거두는 듯했으나 이후 시청률의 난조를 겪었는데, 그것이 작품의 스토리텔링 문제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 근거로 <맨투맨>의 후속으로 상영되었던 <품위 있는 그녀>는 사전제작임에도 불구하고 10%의 평균시청률(닐슨코리아 제공)을 기록하였다. 이는 종편 드라마로서는 최고의 기록으로서 시청률의 저조가 시청시간대의 문제가 아님을 말해준다. 아울러 이 작품은 사전제작된 다른 작품과 비교하여 배우의 연기력 논란이 적었던 작품이므로 <맨투맨>의 문제는 오롯이 스토리텔링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전제작된 여러 작품들 중 분석대상으로 삼기에 가장 적합한 작품이다.

## 2. 연구방법

### 2.1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도구

소셜 분석은 주로 텍스트 마이닝과 감성분석을 통해 이루어진다[10]. 이 글에서는 사전제작 드라마에 대한 시청자들의 생각을 읽기 위해 뉴스를 배제하고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하여 글을 올리는 블로그를 대상으로 텍스트 마이닝을 수행하였다. 또한 사전제작 드라마 <맨투맨>에 대한 감성분석을 살펴보았다. 네이버 블로그 수집은 2016년 12월 15일 ~ 2017년 12월 15일 사이의 ‘사전제작 드라마’ 또는 ‘드라마 사전 제작’이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블로그 글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전체 67개의 블로그가 검색되었다. 사전제작드라마에 대한 각각의 블로그 대하여 텍스트 데이터를 스크래핑하기 위해서는 OutWit Hub[12]를 사용하였고, 스크래핑한 텍스트 데이터에 대하여 텍스트 마이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RStudio[13]를 사용하였다. <맨투맨>드라마에 대한 감성분석은 2017년 5월 22일 ~ 2017 6월 22일 사이의 트위터 트윗과 블로그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드라마가 방송되었던 기간과 드라마가 끝난 시점에서 시청자들의 반응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웹, 블로그, 트위터 등 좀 더 방대한 데이터를 대상으로 감성 분석을 위해서 소셜 매트릭스[14]에서 제공하는 도구를 활용하였다.

### 2.2 텍스트 마이닝을 통한 키워드 추출

#### 2.2.1 블로그 텍스트 수집

블로그 등 웹 사이트 글을 수집하기 위해 웹 스크래핑이 요구된다. 웹 스크래핑(Web Scraping)은 웹 사이트로부터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하는데 사용하는 기술이다[15]. 본 연구에서는 블로그 텍스트 스크래핑을 위해 Outwit Hub을 사용하였으며, 67개 블로그에 대한 태그 필터링을 통해 텍스트 데이터를 얻었다.

#### 2.2.2 텍스트 데이터의 전처리

텍스트 데이터의 전처리는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작업 중의 하나이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문자열을 제거하고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구조화한다. 일반적으로 불필요한 문자열을 제거하는 방법은 정규표현식과 이를 지원하는 함수를 사용한다. 다음은 gsub()함수를 사용하여 트윗에 포함되어 있는 URL과 @문자를 제거하는 부분의 스크

립트이다. gsub()함수는 제거할 문자열의 패턴을 ""로 대치함으로써 불필요한 문자열을 제거한다. 텍스트 데이터를 구조화하는 방법 중에서 제일 먼저 수행하는 것은 명사나 형용사 등의 의미 있는 단어들을 추려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tm(text mining) 패키지와 한글 자연어 처리 패키지인 KoNLP 패키지가 필요하다[16]. 이 과정에서 블로그 검색 조건에 사용되어 다른 단어들에 비해 빈도가 월등히 높은 '드라마', '제작', '사전' 등은 제거되었다. 그밖에 상위 빈도를 갖지만 분석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하나', '이유', '생각', '사람'과 같은 단어들도 제거되었다.

### 2.2.3 워드클라우드를 이용한 시각화

워드클라우드란 텍스트에서 빈번히 사용된 키워드를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텍스트 마이닝 방법으로 단어의 사용 빈도가 높을수록 그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 크게 표시하는 방법이다[16,17]. 워드 클라우드는 문자열 벡터에 있는 단어와 단어들의 빈도를 기준으로 출력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단어의 빈도를 내림차순으로 계산하여 최소 단어 빈도가 10이상인 200개 단어를 대상으로 워드클라우드를 시각화하였다.

### 2.2.4 감성분석

감성 분석은 텍스트를 작성한 사람들의 태도, 의견, 성향과 같은 주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특정 주제에 대해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분류하는 기술이다[18]. R의 강점은 풍부한 패키지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에 있다. 그러나 대용량의 데이터셋은 작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19]. 즉, PC환경에서 R과 같은 도구로 반복적으로 블로그와 트위터 트윗을 스크랩핑하는 분석 방법은 소셜미디어의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살펴보는 데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사전제작 드라마에 대한 좀 더 방대한 데이터를 대상으로 감성 분석을 수행하고자 소셜미디어 분석 도구인 소셜메트릭스를 활용하였다.

## 3. 연구결과 및 논의

### 3.1 스토리와 드라마 사전제작

Fig. 1은 드라마 사전제작과 관련한 블로그를 대상으

로 텍스트 마이닝의 결과를 워드클라우드로 시각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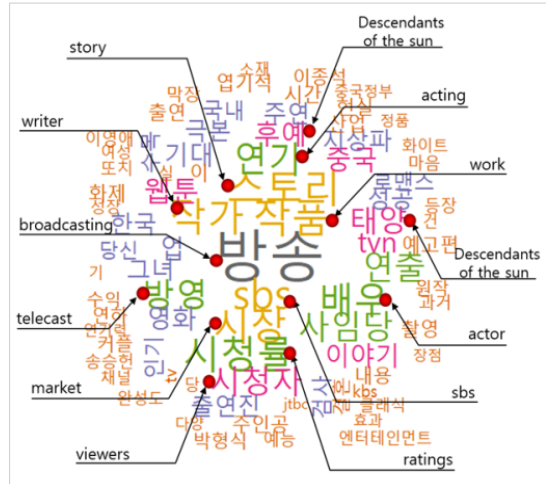


Fig. 1. Wordcloud for pre-production drama

가장 출현 빈도가 높은 단어는 ‘sbs, 작품, 스토리, 시장, 작가, 시청률’ 등이었다. ‘배우, 연기, 방송, 방영, 시청자’ 등도 높은 출현 빈도를 보였다. 블로그에 올라온 많은 글들이 ‘작품’을 중심으로 ‘시청률’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블로그에서 시청률 저조의 최고 원인으로 꼽고 있는 것이 ‘스토리’와 ‘작가’의 문제였다. 사전제작이므로 ‘작품’의 품질 향상에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토리’가 어설뜨거나 엉성해서 좋은 결과(‘시청률’)를 얻기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반면 ‘배우’의 ‘연기’에 대해서는 호평과 혹평이 엇갈렸다. 가령 가장 출현 빈도수가 높은 드라마인 <태양의 후예>의 경우 배우의 연기가 스토리와 어우러져 시너지 효과를 냈다는 글이 많았지만, <사임당-빛의 일기>(이후 ‘사임당’으로 표기)의 경우 배우의 열연에도 불구하고 스토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사임당>은 배우의 연기에 대해서도 호평과 혹평이 엇갈렸다.

스토리에 문제가 있어 고전을 면치 못한 드라마로 가장 많이 거론된 작품은 ‘SBS’의 ‘<사임당>’이었다. 그 뒤를 이어 SBS의 <당신이 잠든 사이에>(이후 ‘당신이’)와 jtbc의 ‘<맨투맨>’이 거론되었다. ‘SBS’의 출현 빈도가 높은 것은 사전제작으로 실패한 ‘<사임당>’과 ‘<당신이>’에 대한 글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청자들의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던 것으로 보이는데, 드라마의 성패에 ‘극본’과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맥락이었다. 작은따옴표로 표시한 단어들은 모두 순위에 랭크된 단어이다.

### 3.2 드라마 <맨투맨>의 스토리텔링과 문제점

#### 3.2.1 첩보물과 변모의 플롯

분석에서 드러났듯이 시청자들은 드라마 사전제작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지닌 것으로 ‘스토리’와 ‘작가’, ‘극본’, ‘내용’을 꼽았다. 여기서 ‘스토리’는 ‘사건의 연대기적 구성’ 혹은 ‘작품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스토리 개념이라기보다 스토리 담론을 모두 포괄하는 ‘스토리텔링’ 혹은 ‘서술구조’ 개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실제로 쓰인 맥락을 살펴도, 작품의 줄거리를 가리키는 스토리보다 그것이 형상화된 양태를 가리키는 담론이나 텍스트 층위에 쓴 경우가 더 많다.

<맨투맨>은 jtbc에서 2017.04.21.~2017.06.10. 방영되었던 작품으로, 첩보원 김설우(박해진 분)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다. 다음은 심층적 인과관계 중심으로 사건을 요약하는 발(Mikye Bal)의 서사이론에 따라 드라마를 요약한 것이다.

- 가능성 : 김설우가 고독하고 냉담한 첩보원이다.
- 과 정 : 김설우가 한류스타 여운광과 그의 매니저 차도하에게 인간적인 감정을 느낀다.
- 결 과 : 김설우가 인간적이고 평범한 삶(작전이 아니라 인생)을 선택한다.

요약에서 드러나듯이, 이 드라마는 다재다능한 능력을 지녔으나 고독하고 냉담한 첩보원이었던 김설우가 첩보원으로서의 삶에 환멸을 느끼고 평범한 삶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다. 이 드라마는 ‘변모’을 플롯을 지녔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얽혀드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토비아스(Ronald B. Tobias)는 변모의 플롯이 주인공(프로타고니스트)이 원래의 인물에서 의미 있는 다른 인물로 변하는 과정을 집중적으로 그린다고 말하는데[20], 이런 맥락에서 보면 변화의 본질은 김설우가 고독한 첩보원의 세계를 떠나 ‘평범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드라마의 성패는 김설우의 변화와 그 변화를 가능케 한 원인이 얼마나 적절하게 형상화되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아야 한다. 요약에서

드러나듯 이를 가능케 한 것이 ‘인간적인 감정’(여운광을 향해서는 형제애, 차도하를 향해서는 애정)이다.

일단 김설우의 변화는 정체성 변화에 해당할 것이다. 김설우는 국정원 내의 비밀조직인 백사단을 소탕하는 작전에 고스트 요원 Y의 죽음으로 긴급투입되는데, 그 과정에서 동료 장태호(장현성 분)에게 총을 맞는 등 일생 일대의 위기를 맞게 된다. “자기 편 쏘는 작전이 어딴어? 죽음 위장하는 거면 다른 방법도 많잖아요.”라고 묻는 차도하(김민정 분)에게 김설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택한 거죠. 진짜 죽더라도 상관없으니까.”라고 자조적으로 말하는데, 그는 이 사건을 계기로 고스트 요원으로서의 삶을 돌아보게 된다. 따라서 자신이 “목적에 위한 수단. 필요에 따라 쓰고 버릴 카드”임을 깨닫고 변화했다고 볼 수 있다.

김설우가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장면화한 것이 제12회에 등장하는 악몽씬이다. 김설우는 총을 맞고 돌아와 악몽을 꾸는데, 꿈속에서 차도하(김민정 분)와 ‘밥 먹고, 영화 보고 차 마시는’ 꿈을 꾸다. 카페에 마주앉은 김설우에게 차도하는 “그거 알아요? 우리 테이트 다 했어요. 밥 먹고, 영화 보고, 차 마시고.”라고 말한다. 이 때 누군가 쓴 총에 심장이 정확하게 관통한 차도하는 즉사한다. 김설우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는데, 또 다른 자신이 차도하에게 총을 쏘았다는 사실에 망연해지는 꿈이다. 이 장면은 김설우의 내면 속에서 ‘첩보원으로 살고 싶은 자아’와 ‘평범한 삶을 살고 싶은 자아’가 투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설우는 잠에서 깨어 “다행입니다. 무사해서. 당신이 허락하기 전에 나 절대로 안 죽어요.”라고 말하는데, 이 장면은 앞으로 김설우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암시해준다.

“비겁한 국가 대신 가족을 선택했을 뿐이야. 이제 너도 선택해야 돼.”라고 말했던 서기철(태인호 분)이 첩보원의 삶의 버리고 평범한 삶을 선택했듯, 김설우도 평범한 삶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후의 과정, 곧 김설우가 첩보원의 세계를 떠나는 과정이 흐려져 있기는 하다. 그러나 드라마 전체의 맥락을 고려해 보건대 그가 첩보원의 삶을 버리고 평범한 삶으로 돌아갔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드라마가 비자금의 검은 커넥션 청산이라는 정의로운 일을 행하기 위해 플랜B로 김설우에게 총을 쏘는 장태호를 악인으로 그리지 않기 때문에 첩보 세계의 비정함은 묻혀버리지만, 김설우가 ‘붉은 시월 소탕 작전’까지 참여하고 헝가리의 센트럴 카페 앞에서

사라져 버린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논급했듯이 <맨투맨>은 김설우의 정체성 변화과정을 그린다. 드라마는 주인공 김설우의 변모를 때로는 진중하고 때로는 가벼운 터치로 그려가는데, 이 때문에 시청자는 주인공의 변화 과정에 즐겁게 동참할 수 있다. 이 작품이 “유쾌한 스토리를 첩보물이라는 포장지로 감싼 작품”[21]이라는 평을 듣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곧 <맨투맨>이 얻은 절반의 성공은 ‘주인공 김설우의 정체성 변화 과정’이 불러일으키는 공감에 힘입은 바 크다. 한편, 매회 강조되고 있는 “나는 고스트 요원 K. 이름도 명예도 없는 그림자. 나의 임무는 자유와 진리를 지키기 위한 이름 없는 싸움이다.”라는 내레이션처럼 이름도 명예도 없는 첩보세계의 비정함이 더 부각될 필요도 있었다고 보는데, 이 점은 이후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 3.2.2 형제애의 선전과 로맨스의 부진

다음으로 살필 것이 김설우를 변화시킨 원인, 곧 ‘인간적인 감정’이다. 주인공 김설우를 변화시킨 것은 ‘여운광과의 형제애’와 ‘차도하와의 애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김설우의 변화에 원인을 제공하는 만큼 작품의 개연성은 그 적절한 형상화에 달려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여운광과의 형제애를 그리는 스토리라인에 비해 차도하와의 애정은 개연성이 매우 떨어진다.

일단 김설우와 여운광의 형제애를 그리는 스토리라인은 개연성이 있다. 여운광이 김설우를 전폭적으로 돕는 것이 김설우가 자신의 생명을 구했기 때문이라는 맥락에서 보면 설득력이 있다. 아래에 제시한 <맨투맨>의 감정 분석에서도 이러한 점이 잘 드러난다.

Table 1은 2016. 05. 22 ~ 2016. 06. 22 기간의 <맨투맨> 드라마에 대한 감정분석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트위터 382건, 블로그 131건으로 전체 513건이 검색되었으며, Fig. 2는 <맨투맨> 드라마의 긍정-부정에 대한 감정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새로운’, ‘트렌디한’, ‘깔끔한’ 등의 단어가 눈에 띈다. 이러한 표현은 김설우의 정체성 변화 과정을 그리는 스토리라인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첩보원의 세계를 그린 드라마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를 코믹하고 가벼운 터치로 그린 점이 시청자의 감성에 호소한 결과로 보인다.

Table 1. Sentiment analysis for ‘Man to Man’ drama

No.	Word Association	Sentiment Classification
1	New	Neutral
2	Cute	Positive
3	Good	Positive
4	Cheer up	Positive
5	Monday sickness	Negative
6	Various	Neutral
7	Hot	Positive
8	Lovely	Positive
9	Commend	Positive
10	Pretty	Positive
11	Trendy	Positive
12	Laugh	Positive
13	Like	Positive
14	Tidy	Positive
15	Bad	Negat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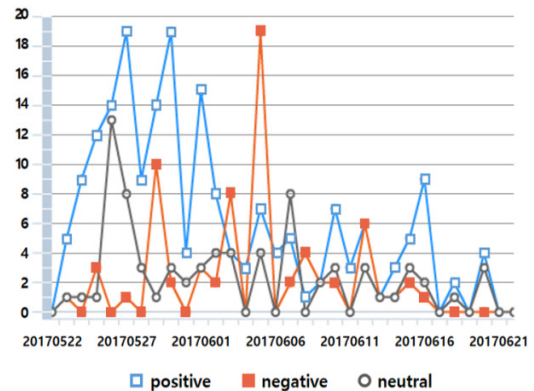


Fig. 2. Positive-negative trend for ‘Man to Man’ drama

순위에 오른 ‘귀여운’, ‘귀엽다’, ‘웃다’, ‘좋아하다’ 등의 단어들은 김설우와 여운광의 형제애를 그리는 코믹한 스토리라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러블리하다’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반면, 로맨스에 대한 감응 표현은 발견되지 않는데, 이는 드라마 <도깨비>와 비교하면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도깨비>에는 ‘기다리다’, ‘좋은 인연’, ‘애정’, ‘행복하다’ 등의 단어가 순위에서 발견되는데, 시청자의 관심이 애정을 그리는 스토리라인에 있음을 시사한다. <맨투맨>에서 애정을 그리

는 스토리라인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은 시청자들이 이 스토리라인에 공감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차도하라는 인물이 일관성 있게 형상화되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차도하는 본래 한류스타 여운광의 소위 ‘빠순이’(극성팬)로 대학졸업 후 여운광의 매니저까지 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그런데 제1회, 제2회를 제외하고 그녀의 여운광에 대한 극성팬다운 면모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후 장면에서 차도하다음에 드러나는 부분은 제16회(최종회)에서 팬심을 악용하여 여운광이 입었다는 점퍼를 팔려던 극성팬을 단속한 장면을 제외하고는 거의 찾을 수 없다. 제시한 회차와 장면을 제외하고 차도하는 소위 ‘모태솔로’로서 김설우와의 로맨스를 그리기 위한 수동적 인물로만 기능한다. 때문에 인물이 매력적으로 형상화되기보다는 역할만이 강조되어 보여지는데, 이러한 점이 인물에 대한 공감도를 떨어뜨렸다고 볼 수 있다.

또 차도하는 아버지 차명석과의 과거사에 지배되는 등 이 드라마가 지닌 장점 중 하나인 가족 관계에 치중되지 않는 ‘깔끔하고’, ‘트렌디한’ 매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김민정의 연기력 논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이 차도하라는 인물에 공감하지 못한 것은, 인물을 일관성 있게 형상화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맨투맨>에서 형제에는 돋보이지만 애정은 돋보이지 못한다. 이는 드라마 시청층이 주로 여성임을 고려하건대 매우 심각한 문제로 여겨질 수 있다. 수용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맨투맨>의 시청률이 4%대에 머무른 것은 주된 시청층의 호응을 불러일으키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 3.2.3 인물 형상화와 작품의 개연성

<맨투맨>은 ‘맨들(남성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에도 드러나듯 남성인물이 여성인물보다 많이 등장하는 드라마이다. 첩보물이라는 장르의 특성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 작품을 쓴 김원석은 김은숙과 함께 <태양의 후예>를 집필한 작가로도 유명하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왔듯이, 이 작품에는 <태양의 후예>의 여주인공 강모연 같은 당차고 현대적인 여성인물의 형상화는 부족해 보인다. 현대적인 직업과 헤어스타일만으로 현대적인 여성인물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외양도 중요하지만 인물의 말과 행동, 곧 인물 형상화가 더욱 중요하다.

이점은 작가가 남성이라는 점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맨투맨>에 등장하는 남성인물들, 곧 김설우, 여운광, 이동형, 장태호 같은 인물들이 일관성 있고 현실성 있는 인물로 형상화되어 있는 반면, 여성인물들, 차도하, 송미은, 송이 등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서 여성인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한계가 드러난다.

이 드라마의 여성인물들은 대개 가족사나 과거사에 휘달리는 인물들이다. 드라마에서 여성인물로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인물은 그나마 송미은인데, 이 인물은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 송미은은 국정원 고스트 요원이었다가 국정원을 그만 두고 모승재와 결혼하여 ‘자신만의 작전’을 계속해 온 인물로 그려져 있다. 김설우는 송미은의 프로파일링을 “보호와 방어를 위해서라면 미모와 매력을 거침없이 무기로 사용하는 현실주의자. 고아출신 송미은의 프로파일링은 생존을 절대가치로 생각하는 정글의 아마조네스.”라고 요약한다. “송미은의 선택에 대한 키워드는 정글에서의 생존이야. 과거 여운광 사고 때는 모승재를 선택해야 자신이 살아남아 모두를 지킬 수 있다고 본능적으로 판단한 거야”(제14회)라고 하여, 송미은이 여운광을 지키기 위해 모승재와 결혼했음을 알려준다. 사실 ‘생존’과 ‘사랑’은 같이 묶이기 어려운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사랑’을 위해 ‘생존’을 선택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설득력이 약하다. 국정원 고스트 요원이려면 사랑을 위해 투쟁하거나, 생존을 위해 사랑을 버리는 것이 오히려 설득력 있다.

차도하의 친구로 등장하는 송이라는 인물도 존재감이 모호하기는 마찬가지이다. 특히 이 인물은 잦은 등장에도 불구하고 여주인공의 말을 들어주는 역할 외에 뚜렷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앞에서 논급했듯이 무엇보다 설득력이 떨어지는 인물은 차도하인데, 김설우가 위치추적을 보고 도하가 위기에 처한 줄 알고 급히 찾아가 보니 성당에서 기도하고 있는 등 차도하를 소위 ‘빠순이’ 출신 매니저라고 보기 어려운 장면 속에 등장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Table 2는 <맨투맨>의 연관어 키워드와 검색 건수를 나타낸 것이다.

<맨투맨>의 연관어 키워드를 살펴보면, OST가 순위에 올라와있음을 살필 수 있다. 비슷한 기간 방영되었던 OCN의 <터널>에서는 이러한 키워드가 발견되지 않는다. <맨투맨>이 중국시장을 겨냥하여 사전제작 되었으므로, OST, PPL 등을 전략적으로 준비했음을 알려준다.

그러나 사전제작된 <맨투맨>보다 <터널>이 시청률 (6.5% 닐슨코리아 제공)과 완성도 면에서 앞서고 있는 점을 보면, 사전제작 되었음에도 작품의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점이 문제로 제시된다. 분석했듯이 이러한 문제는 여성인물 형상화의 개연성 결여와 이에서 비롯된 로 맨스라인의 공감 결여에서 비롯되었다.

**Table 2.** Associated word for ‘Man to Man’ drama

No.	Associated Word	Number of Search Cases
1	Pak Haejin	371
2	jtbc	200
3	Source	145
4	Naver	140
5	Park Sungwoong	104
6	Kim Minjung	86
7	Fictitious Demand	64
8	pop	52
9	Singer	40
10	Style	32
11	dvd	31
12	ost	26
13	Induction	25
14	Extreme Work	23
15	New	17

사실이 이러하다면, 이러한 부분은 전략적으로 여성 작가와 제휴하여 작품을 함께 쓰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같은 작가의 작품으로 <태양의 후예>가 성공한 점이 그 근거가 될 수 있겠는데, 스토리텔링을 더욱 전략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스토리텔러는 감상자로 하여금 ‘무엇’을 체험시킬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체험시킬 것인가, 이 두 가지에 항상 치열하고 섬세한 관심을 기울여야”하는 사람이다[22]. 드라마의 스토리텔러는 감상자로 하여금 ‘무엇’을 체험시킬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체험시킬 것인지를 궁구해야 한다. 체험은 단순히 새롭고 신선한 소재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가 그 인물과 그 인물의 삶에 공감하게 될 때 실현된다. 따라서 인물의 개연성을 높여 시청자의 공감도를 높이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 4. 결론

본고에서는 드라마 사전제작과 스토리텔링의 관련성을 소셜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드라마의 스토리텔링이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구조화되어야 할지를 jtbc의 <맨투맨>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드라마 사전제작이 긴요한 시점에서 사전제작 드라마의 문제점에 대해 진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2016년 12월 15일 ~ 2017년 12월 15일 사이의 ‘사전제작 드라마’ 또는 ‘드라마 사전 제작’이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67개의 블로그 텍스트를 대상으로 텍스트 마이닝 결과를 보면 ‘작품’(52), ‘스토리’(50), ‘작가’(49), ‘배우’(45), ‘연기’(44)와 같은 단어들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시청자들이 드라마에서 중시하는 요소를 짐작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드라마의 흥행 저조가 꼭 사전제작이어서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 인물의 개연성을 높여 시청자들의 공감도를 높이는 것이 긴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상과 같은 점에서 볼 때 드라마의 성패는 사전제작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라기보다 기획부터 제작에 이르는 스토리텔링의 과정이 얼마나 치밀하고 시청자의 공감을 얻도록 구조화되어 있느냐에 달려있다. 최근 드라마 산업은 문화산업인 동시에 관광,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들과 더불어 부가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산업적 요소에 대한 심도 있는 고려가 필요하며, 이러한 맥락 하에 작품성 향상 및 다양한 요소들을 아우르는 산업 전략을 세우는 사전제작 시스템 정착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드라마 흥행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과 사전제작 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는 디지털 중심 스토리텔링 연구의 기반을 조성하고 문화 콘텐츠 산업의 전망과 이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References

- [1] H. D. Kim, S. H. Kim, A Policy Status of TV Drama Outsourcing Production & Countermeasures -Focused on the Prearranged Production for Compulsory Outsourcing Ratio, *The Korean Journal of Art and Media*, vol. 8 no. 1, pp. 33-44, 2009.



- [2] The midnight entertainment section 2.0, “Even Lee Young-ae failed on her pre-production drama. The problem is the story”, MY TISTORY, 2017.2.14., Available From: <http://entertainforus.tistory.com/2122>. (accessed Jan., 10, 2018)
- [3] H. J. Choi, “Secondary ‘Descendants of the Sun’!, What is the formula for the Korean type of pre-production drama to be popular?”, Sports Seoul, 2017.5.17., Available From: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512617#csidx7038fd4d84092c4a29107d51682d925>. (accessed Jan., 10, 2018)
- [4] The team of digital news, “Grand Prize in Fine Arts 2016, ‘Descendants of the Sun’, Award by Lee Joon-ik the grand prize of supervision in the work of ‘Dong-ju’, ‘Sa-do’”, Hankyung, 2016.6.4., Available From: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606040054&resource=>. (accessed Jan., 10, 2018)
- [5] H. J. Jin, “Last year's sales figure of contents industry was ‘105 trillion’...Will grow in the crisis”, Digital Times, 2017.1.18., Available From: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011802109931043003](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011802109931043003). (accessed Jan., 10, 2018)
- [6] J. E. Baek, “‘Descendants of the Sun’→the High-toned woman’, the law of Box office performance of pre-production drama”, Sports Chosun, 2017.7.30., Available From: <http://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1707300100280800020912&servicedate=20170730>. (accessed Jan., 10, 2018)
- [7] H. R. Yang, A Study on the Legislation of Foreign Investment for China's Visual Industry - Mostly about the Movie and Drama Industry, *Chosun law journal*, vol. 20 no. 2, pp. 33-60, 2013.
- [8] S. Y. Kim. Effect of power recognition between the interested parties in drama production on the decision of production system, Sogang University(M.S.), 2011.
- [9] H. H. Moon. Research on the aspects of Chinese capital investment in the Korean media content market, Dongguk University(M.S.), 2017.
- [10] S. H. Bae, D. H. Kim, I. H. Kwak, Y. K. Song. Social Experience Strategy of Big Data and SNS era. Seoul, Korea: Acorn Publishing, 2012.
- [11] H. K. Kim, K. S. Kwon, “Social Roles of Child Sexual Crime Faction Films: Text Mining Analysis of Audiences’ Emotional Reaction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8, no. 6 pp. 662-672, 2017. DOI: <http://doi.org/10.5762/KAIS.2017.18.6.662>
- [12] OutWit Hub Technologies, “Harvest Web”, Available From: <http://www.outwit.com>. (accessed Jun., 10, 2017)
- [13] RStudio, “Open source and enterprise ready professional software for R” Available From: <https://www.rstudio.com> (accessed Jun., 10, 2017)
- [14] Social Metrics “Social Metrics Biz.” <http://socialmetrics.co.kr/socialSearch.html>. (accessed Jun., 10, 2017)
- [15] Wikipedia. “Web scraping”, Available From: [https://en.wikipedia.org/wiki/Web\\_scraping](https://en.wikipedia.org/wiki/Web_scraping). (accesses Dec., 5, 2017)
- [16] Yoo, C. H., and S. H. Hong. R Visualization. Seoul, Korea: Insight, 2015.
- [17] S. T. Yu, S. H. Oh, “Malware Analysis Mechanism using the Word Cloud based on API Statistic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10 pp. 7211-7218, 2015. DOI: <http://doi.org/10.5762/KAIS.2015.16.10.7211>
- [18] D. H. Im. Big Data Analysis Using R., pp. 13-103, Seoul, Korea: Free Academy, 2015.
- [19] V Prajapati. Big Data Analytics with R and Hadoop. Birmingham, UK: Packt Publishing, 2013.
- [20] RB Tobias. 20 Master Plots: And How to Build Them, Writer's Digest Books, 2011.
- [21] Allets, “JTBC new Fri. & Sat. drama ‘Man x Man’ 10 billion Investment & 100% Pre-building!”, Naver post, 2017.4.18. Available From: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7252429&memberNo=23519771&searchKeyword=%EB%B0%95%ED%95%B4%EC%A7%84%20%EA%B9%80%EB%AF%BC%EC%A0%95&searchRank=24>. (accessed Jan., 10, 2018)
- [22] S. H. Choi Storytelling, How to do?, Seoul, Korea: Moonji Publishing, 2015.

**김 경 애(Kyung-Ae Kim)**

[정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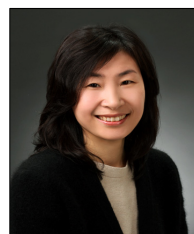
- 1998년 8월 : 숙명여자 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문학석사)
- 2008년 2월 : 숙명여자 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문학박사)
- 2010년 3월 ~ 2013년 2월 : 우송대학교 교양교육원 초빙교수
- 2014년 3월 ~ 현재 : 목원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국어 교육, 문학 및 문화 관련 융합, 미디어 교육

**구 진 희(Jin-Hee Ku)**

[종신회원]



- 2001년 2월 : 충남대학교 컴퓨터과 학교육학과 (교육학석사)
- 2010년 2월 : 충남대학교 공업(컴퓨터)교육학과 (교육학박사)
- 2010년 9월 ~ 현재 : 목원대학교 정보통신융합공학부 교수

<관심분야>

컴퓨터과학교육, 빅데이터, 머신 러닝, 클라우드 컴퓨팅